

# “반도체·화학 등 제조업 강국, 아태지역서 한국 시장 중요”

(아시아 태평양)

**인터뷰** | **용식영** FM글로벌 아시아 태평양 디비전 엔지니어링 매니저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200년간 FM글로벌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한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용식영(Yong Seek Ying) FM글로벌 아시아 태평양 디비전 엔지니어링 매니저(부사장)는 올해로 23년째 FM글로벌에 몸담은 베테랑이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아시아와 호주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총괄한다. 한국 시장 진출을 두고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정착에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국을 방문했다.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연사로 초청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FM글로벌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 만큼 자사의 강점인 화재 예방 및 방재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FM글로벌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재물보험사로 사고 예방 솔루션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방점을 둔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 ◆ 지난 2월 국내 상륙

용식영 매니저는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제조 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조사들이 다수 포진했다”며 “회복탄력성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FM글로벌이 아태지역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했지만, 이제는 직접 한국에 뛰어 들어 신규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용식영 매니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반도체, 화학 제조산업에서 높은 입지를 다진 만큼 FM글로벌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FM글로벌은 기업의 손실 및 피해를



“

‘포춘 글로벌 500’ 기업 고객사로 뒤 기업 손실·피해 예방 솔루션 제공

한국 시장서 ‘회복탄력성’ 활용 계획 손해·영업효과 등 살피는 전담팀 운영

담보할 뿐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객사에 자사 엔지니어를 파견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가연성 단열재 등의 소방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FM글로벌은 엔지니어 1900여 명을 전 세계 각지에 파견했다. 주요 제조 시설이 있는 국가에는 모두 진출했

다. 한국에는 4명의 엔지니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시장 확대 여부에 따라 엔지니어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 FM글로벌의 경쟁력은 ‘경험, 지식, 노하우’

용식영 매니저는 FM글로벌이 한국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물보험을

다루는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년간 쌓아온 경험치뿐 아니라 ‘포춘 글로벌 500’에 속한 기업을 고객사로 두면서 개발한 연구 결과 등을 모두 쏟아 내겠다는 다짐이다.

포춘 글로벌 500이란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FORTUNE)’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500곳의 기업을 의미한다. 월마트, 아마존 등이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다.

그는 FM글로벌 소속 엔지니어들은 국가와 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조건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FM글로벌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18개월의 교육과정을 빠짐없이 통과해야 한다. 유사한 위험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다.

용식영 매니저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각 국가가 가진 위험의 종류는 모두 다르다. 일본은 쓰나미, 지진, 폭설 등에 취약하고 한국은 태풍과 홍수에 약하다”며 “국가별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모두 갖고 있다. 미세한 부분까지 전부 반영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평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 내 경쟁력 확보의 초석으로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화재나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 ◆ 회복탄력성… “기업 경쟁력으로 귀결”

FM글로벌은 지난 200년간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 향후 한국 시장에서도 기업의 가치를 책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회복탄력성이 활용될 계획이다.

용식영 매니저는 기업의 피해·손실 원인을 살펴보면 설비 및 장비 고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설비의 고장은 기업과 직원 유통·공급망까지 피해를 확산하기 때문이다.

FM글로벌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영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잠재적인

위험까지 모두 판단한다. 특정 설비나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위험 요소’와 ‘취약점’이다.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발생할 손해와 영업 효과 등을 모두 살피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을 강조했다. 이어 재물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FM글로벌이 설립한 위험·재난 시뮬레이션 연구소에 방문하라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연구소는 싱가포르에 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했다. 각 상황별 필요한 정보와 대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 ◆ ‘대구엑스코’ 방문

용식영 매니저의 첫 일정은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는 ‘2023국제소방안전박람회’다. 그는 박람회에 연사로 초청받아 화재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FM글로벌의 화재 예방 요령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다. 큰 행사에 초청해주셔서 영광이다”라며 “과거 대구의 지하철에서 한 차례 대형 화재가 발생한 만큼 화재에 관한 경각심을 강조할 예정이다”라고 귀띔했다.

박람회에서도 FM글로벌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 가연성 단열재의 특성과 화재 예방 솔루션을 국내외 기업들과 공유하면서 관련 위험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위험 요소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손실 예방에 앞서 위험을 감지하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식영 매니저는 “손실 예방의 핵심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전문가와 함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유노조 사업장 13%,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추석 앞둔 은행권, 추석자금 60조 펀다

고용부, 480개소 타임오프제 조사 시간한도 2.9배 등 초과 사례도 9월내 200개소 대상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 내 부당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이 중 노사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급여 일부를 지원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또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

(13.1%)에 달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이며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풀타임 면제자의 월 평균 급여 총액은 112억여 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 또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 등이다.

고용부는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김연세 기자 kys@

중소기업 자금 부족 지원 등 대응

은행권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에게 총 60조원을 공급한다. 지난주 지방은행이 특별지원에 나선 가운데 4대은행도 15조원의 금융 공급을 결정했다.

당초 소상공인의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9월 위기설’이 대두됐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을 지원하고 만기연장 일정을 늘리면서 선제대응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13일까지 각사별 15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시작했다. 각각 신규지원 6조원, 기존 금융의 기한연장 9조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대출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중소기업이다. 대상 여신은 일반대출

(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당좌·통장·외화대출 등 제외) 등이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대출채권 관련 대출(B2B·할인어음·구매자금대출·채권담보대출 등) 등에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대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0월13일까지 실시되며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10억원 한도 이내다. 최근 중국경제 불안과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 2.5%p의 금리 감면도 추가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